탐라문화의 성격과 발전 방향*

현 승 환**

<차 례>

1. 머리말
2. 왜 탐라문화일까?
3. 탐라문화 연구 성과
4. 탐라문화 연구 방향
5. 마무리

국문요약

필자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오늘의 제주도에 관해 접근할 때, 제주문화와 탐라문화를 구별하여야 한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탐라시대의 문화요, 그 이후는 제주문화이다. 행정구역 명칭만 제주로 바뀌었을 뿐, 거주자나 그들의 문화는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둘째, 탐라 시대의 문화는 추론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 문화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데는 탐라시대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제주도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탐라시대의 문화 요소를 찾아내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셋째,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

* 이 글은 2008년 6월 20일 <탐라문화> 연구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하였음.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교육과학연구소 소장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방언, 구비문학, 민속에 한정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그 폭을 넓혀야 한다.

넷째, 문화 연구의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개인별로 다양한 연구성과를 한데 모아 연구소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이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때, 제주도 문화의 특성은 드러날 것이다. 특히 주변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사라져버린 고대문화를 복원하는 작업도 시도되어야 한다.

주제어 : 탐라문화, 제주문화, 제주학

1. 머리말

제주도의 문화가 특이하다는 사실은 제주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문화인류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성과는 주변학문에 영향을 미쳐 인문학과 사회학적으로 커다란 연구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성과는 자연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사람을 중심으로 인문·사회·자연환경은 제주문화를 잉태·성장시키고 오늘까지 전승해 왔다. 그 와중에 외적인 변화요인이 없던 것도 아니다. 가깝게는 6.25 전쟁, 4.3 사건 등이 제주문화를 변모시켰고, 멀리는 200년 동안의 출륙금지령과 몽골의 100년에 가까운 정복기간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제주사람들의 문화를 강화시키기도 하였겠지만 크게 변모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연구의 중심축이 없어 종합적인 연구는 물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한정된 연구에만 경도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일에 제주대학교에

‘제주도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1975년 6월 27일 ‘제주도문화연구소’로 개칭되고 1976년 6월에 ‘탐라문화연구소’로 개칭하여 수많은 연구성과와 매년 『탐라문화』라는 잡지와 자료집으로 『탐라문화총서』를 발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제주도 문화에서 탐라 문화로 연구소의 이름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소의 연구 방향과 목적이 제주도 문화라고만 해서는 적합하지 않기에 이를 포괄하기 위한 이름으로 탐라문화를 취한 것이라 본다. 게다가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의 집적이 『탐라문화』라는 잡지에 수록되고 있음도 그 성격을 이해할 만하다. 즉 연구소의 관심은 탐라시대를 바탕으로 한 문화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주문화가 아닌 탐라문화라는 이름의 의미를 점검하고, 앞으로 탐라문화연구소가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2. 왜 탐라문화일까?

제주도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주변국의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선학들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918년 김석익의 탐라기년(耽羅紀年)[1]에 따르면 제주도의 명칭이 州胡, 屯羅, 島夷, 瀛洲, 涉羅, 耽牟羅, 耽羅 등으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이름으로 州胡[2]가 전하는데,

1) 김석익의 『탐라기년(耽羅紀年)』

2) 『삼국지』 위지 동이전 (又州胡國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

> “마한의 섬 가운데 큰 섬에는 주호란 것이 있는데 그들은 몸이 작고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아니하고 선비족과 같이 머리를 깎고 있으나 의복은 가죽으로 만들어 상의만 입고 하의는 없으므로 나체나 다름없으며 또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배를 타고 中韓에 왕래하여 무역하였다”

이렇게 보면, 외적인 모습으로는 머리를 깎은 작은 키에 가죽으로 만든 웃옷만 입은 모습이며, 독특한 언어를 쓰고, 생활방식으로는 소와 돼지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배를 타서 무역하며 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겠다. 그 이후 우리 문헌인『삼국사기』에 따르면,

> 476년(문주왕 2년) 4월에 탐라국이 토산물을 바치므로 왕은 기뻐하여 그 사자에게 恩率의 벼슬을 주었다.[3]

고 하여 비로소 주호에서 탐라로 그 이름이 바뀐다.『신당서』에 “서기 661년 탐라국 왕 유리도라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내조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주변국과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겠다. 게다가『삼국유사』황룡사 9층탑조에 “신라 27대에 여왕이 왕이 되었는데 비록 道 는 있어도 威가 없으므로 九韓이 침범하니 만일 龍宮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침해를 누를 수 있으니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중국, 제3층은 오월, 제4층은 탁라, 제5층은 응유, 제6층은 말갈, 제7층은 단국, 제8층은 여적, 제9층은 예맥이라”[4] 하였다. 27대 여왕인 선덕여왕이 재위 15년(632-647) 동안에 있

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市買中韓)

3)『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 제4, 문주왕, (二年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었던 사실이며, 여기서 '탁라'는 탐라로 신라를 위협하는 4번째 국가인 셈이다.

이러한 나라가 『고려사지리지』에 따르면, 숙종 10년(1105년) 탁라를 고쳐 탐라군으로 하고, 의종 때에 현령관을 두었다[5]고 하니 비로소 이 시기에 와서 완전히 복속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뒤 13세기 말에 이르러서 탐라를 제주로 고쳐 목사와 판관을 두었다고 하니, 이것으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군림하던 탐라가 고려에 복속되어 200 여 년이 지나 군으로 격하되고, 다시 200 여년이 지나 제주로 개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탐라는 초기에는 자치권이 있었겠지만 서서히 자치권을 잃고 고려에 복속이 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 제주의 선조들에 대한 관심은 13세기 이전은 탐라, 13세기 이후는 제주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지형이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 주민이 살아왔으므로, 주변국의 환경변화에 따라 탐라에서 제주로 변화한 것일 뿐,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모하여 탐라에서 제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제주도 주민들이 탐라에서 제주로 바꾸자고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임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내려는 원천은 탐라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탐라라는 이름을 국호로 갖고 있던 때를 탐라시대라 한다면, 그 당시 문화의 수용층은 탐라인이 될 것이다. 탐라인은 탐라국

---

4) 『삼국유사』 권3, 황룡사 9층 탑조,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王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 黃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鎭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 濊貊)

5) 『고려사지리지』, 숙종 10년, (肅宗十年改乇羅爲耽羅郡 毅宗時降爲縣令官)

이 존재할 당시 사람이겠는데 지금 그때 사람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후손이 아직까지 선조들을 기리며 조상이 살았던 땅을 일구며 살고 있기에 그들의 전승문화 요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 땅에서 사람이 살아오면서 나라 이름만 바뀌었고, 소속만 바뀌었을 뿐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문화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탐라시대 문화의 전승층은 오늘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 될 것이다.

오늘날 행정구역으로는 제주도이므로 제주도 거주민의 생활문화는 제주문화라 하겠지만, 그 생활문화를 이루게 하는 근원적 원천은 탐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보아 이것을 탐라문화라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영역을 대상으로 할까? 타일러는 원시문화(1871)에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기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 총체를 문화라 정의하였다. 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보존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생활 방식이다. 결국 탐라문화를 연구한다고 할 때, 탐라문화는 탐라인이 탐라에서 탐라의 자연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추적하려는 연구이다.

인간 개체가 삶을 영위하려면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한다. 게다가 집단이 형성되면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률이 필요하며, 그들 간의 문화를 전승하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자연환경, 거기에 적응하고 도전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환경, 이들에 대한 가치 판단인 인문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그들이 남긴 자료와 흔적을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남긴 자료와 흔적 역시 너무 세월이 흘러 찾아낼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탐라가 제주로 이름만 바뀌고, 그 땅에서는 과거 조상의 자손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탐라 시대의 삶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문화를 통해 재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화는 크게 물질문화, 기술문화, 가치문화로 3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탐라인이 탐라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하며 살았는가라는 기술, 무엇을 이용, 활용하며 삶을 영위하였는가라는 물질, 그 각각은 왜 제주도에서 전승되었을까? 이러한 가치의 문제는 탐라인이 어쩔 수 없는 현재의 터전에서 그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삶을 영위했는가라는 문제를 해명해 준다.

음식문화를 예로 들면, 제주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왜 다른 음식은 없는지,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요리방법은 왜 다른 데와 차이가 나는지 등등에 관한 문제 등을 해명하게 된다. 이들 연구의 최종 목표는 제주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두어지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 속에서 음식 재료를 생산하고, 조리하고, 그 방법을 전승하며 살아왔으니 오늘의 문화방식은 고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에 설립된 제주대학교의 탐라문화연구소가 탐라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문하는 기관의 몫이라 하겠다.

3. 탐라문화 연구 성과

州胡, 毛羅, 耽羅, 耽牟羅 등으로 불리던 시기의 제주도 사람들의 문화를 탐라문화라 하고, 13세기에 탐라군에서 제주로 명칭이 바뀐 후부

터는 제주문화라 칭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 두 문화는 명백하게 그 성격이 다르고, 문화적 특징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탐라에서 제주로 이름이 바뀌면서 편이상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건국 이후 10세기가 지나면서도 제주도의 문화는 급격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계승하고, 후세에 가르치면서 서서히 변모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문화 요소 중 탐라시대의 문화를 구분해내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행정구역 상 제주도이므로 제주문화이지만 제주민의 아키타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탐라시대의 문화 요소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대의 역사와 문화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뚜렷이 하고, 제주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탐라문화연구소를 두고 제주의 특수성을 찾는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탐라문화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따르면 인문과학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설립목적은 "제주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방대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문화를 해명하는 근거로 '역사, 문화, 사회'를 기초 영역으로 삼고 있음을 알겠다. 이 결과 범위를 제주 지역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제주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조사 연구에 둔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제주학이라는 명칭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상 제주일 뿐 문화의 계승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주문화보다는 탐라문화가 폭이 넓다. 탐라문화연구소는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에서의 탐라시대의 문화 요소를 찾아내어 이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내어 그 성과를『탐라문화』잡지로 출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모습도 알 수 없는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

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의 전승은 현재의 모습을 검토하지 않고는 과거의 모습을 유추할 수 없다. 그래서 탐라문화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각종 의제를 제시'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주도는 한반도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거쳤다. 가깝게는 새마을운동,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등이다. 이들 사건은 제주문화의 변모를 촉발시켰다.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운동을 시작으로, 화장실과 지붕개량 등이 이루어졌고, 도로확장, 상하수도 개량사업, 전기보급 등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인조 때부터 시작되어 200여 년 간의 출륙금지령으로 폐쇄화됨으로써 유지되던 고유문화는 급격히 변모하였다.

새마을 운동 때 전도적으로 시행한 화장실 개량은 농사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변소에서 생산되던 거름이 사라지고 비료가 제공됨으로서 새로운 농법이 자리를 잡았고, 과거의 농법은 자연히 소멸하게 되었다. 지붕개량이 됨으로써 띠를 이용한 지붕에서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따라서 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래, 운반방법, 띠를 활용하는 과정 초가의 '지붕일기' 과정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게 되었다. 지붕을 이는 문화 요소가 사라지니 자연 띠를 활용한 집줄을 놓지 않음으로서 집줄을 만들던 기구가 사라졌다. 이처럼 서로 구조적으로 얽혀 있던 문화요소들이 변모하거나 사라져버렸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갑작스레 많은 사람이 제주도로 피란해 왔다. 소수의 인원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다수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제주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래인의 말과 삶의 방식은 그들이 제주에 정착생활을 하면서 변모가 일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변모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외부에

서 유입된 문화와 결합하면서 변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모 양상은 근래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전개 단계를 거치면서 변모한 문화적 충격과 변용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 오늘날의 제주도 사람들의 조상은 어떤 삶을 영위하였을까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탐라문화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모되기 이전 문화 양상을 파악하고 변모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시대에 따라 변모함으로써 소멸하는 문화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설 것이다. 연구자는 현재를 연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전망을 도출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사회과학 모두의 사명이다. 인류가 현재만 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까지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영역이 연구 대상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탐라문화연구소 설립배경으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현재 탐라문화연구소의 연구분과 편제는 언어·문학분과, 민속·예능분과, 역사·고고분과, 지리·산업분과, 법정분과, 교육·여성분과의 6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각 분과의 기능은 조사·연구,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국내외 학술교류, 간행물 발간, 자료실 운영, 저명 외국학자 초빙과 연구위원 해외파견 등이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에도 어느 영역에서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어려움은 비단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있어 왔다.

1967년 3월 제주대학 부설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인가되어 초대 소장으로 현평효박사가 이끌어갔고, 1975년에는 제주도문화연구소로 개칭하고, 이어서 1976년 탐라문화연구소로 명칭을 변경, 1981년에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탐라문화연구소로 인가를 받고, 김영돈박사가 초대 소장으로 이끌기 시작하였다. 그 업적으로 『탐라문화』 기관지와 『탐라문화총서』를 발간하며 전국으로 명성을 드높였다. 이 과정에서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릴 정도로 미미하다.

지금까지 연구성과들을 개관하며 그 자취를 더듬어보면, 『탐라문화』 창간호(1981)에 그동안의 제주도에 관한 연구성과를 집성하는 논저목록을 제시하였는데 방언연구론저, 구비문학연구론저, 민속연구론저 3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연구소장이 어떤 전공 영역에서 맡고 있었는가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 초기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들면 현평효(국어학)를 시작으로 김영돈(구비문학), 양순필(고전문학), 김홍식(국어학), 현용준(민속학)의 순서이다. 각 연구소장의 전공은 방언학 구비문학, 민속학, 등이었고, 후에 역사학과 사회학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1952년 축산과, 법과, 국문과, 영문과로 개교한 제주초급대학은 1961년 국립제주대학으로 편입하면서, 법문학부에 법학과, 상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농학부에 농학과, 축산학과, 가정학과를 두고, 198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5개 대학 42개 학과 2개 대학원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 현재는 9개 대학 6개 대학원으로 확대되었다. 인문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고, 일본어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중어중문

학과, 철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를 졸업한 후속세대들이 문화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주도의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할 다양한 후속세대가 양성되었다고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한국학대학원이 생겨 국어국문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졸업생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이라 하겠다.

게다가 대학 당국에서 지원하는 탐라문화연구소의 1년 예산도 미미하여 연구소 자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기는 무리이다. 하지만 대학 당국의 관심이 미약하다고 팔짱끼고 있지 않고, 학술진흥재단을 활용한 연구비 수주를 통해 오늘처럼 건실하게 성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탐라문화연구소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몇 분야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문화』 창간호의 논저목록을 참고해 보면, 저서를 출판한 연구자가 9인, 논문으로는 전체 80편이다. 그 중 강근보(8편), 강정희(4편), 김공칠(4편), 김홍식(6편), 현평효(19편) 등으로 일부에 치중해 있다. 구비문학 연구논저는 29편의 저서 중 진성기가 8, 현용준이 8권이고,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마을별 학술조사물 6권이 있다. 논문으로는 82편 중 김영돈이 26편, 임헌도가 8편, 현길언이 7편, 현용준이 12편 등이 있다. 민속연구논저에는 44권의 단행본 중 김영돈이 7권, 석주명이 3권, 진성기가 8권이 있고, 논문으로는 136편 중 고부자 7편, 김영돈 15편, 장주근 3편, 진성기 16편, 최재석 12편, 현용준 32편, 佐藤信行 3편 등이다. 이 중 강정희, 진성기, 임헌도, 고부자를 제외한 강근보, 김공칠, 김홍식, 현평효, 김영돈, 현길언, 현용준 등이 제주대학교에 재직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제주도 문화 연구의 1세대들이라 할 만하다.

지금은 이들 제자들이 제주도 문화 발굴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영역이 언어, 민요, 민속에 한정되어 있다. 문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

과 연구자가 나타나야 한다.

4. 탐라 문화 연구 방향

연구소의 사업 결과는 연구물로 드러난다. 탐라문화연구소의 연구물인 『탐라문화』 창간호의 연구 방향은 방언, 구비문학, 민속에 치중해 있었다. 그 원인은 연구소장의 학문영역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탐라문화연구소는 누가 소장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그 관심이 달라졌던 것 같다. 역대 소장을 보면, 초대 현평효, 2대 김영돈, 3대 김종업, 4대 양순필, 5대 김홍식, 6대 현용준, 7대 김영화, 8대 송성대, 9-10대 고창석, 11-12대 강영봉, 13대 조성윤, 14-15대 허남춘 등인데, 중심 사업으로 발간한 탐라문화총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탐라문화연구소 발간 목록

소장	연도	발간 총서
김영돈	1985	탐라문화총서 2집 『제주설화집성』
양순필	1989	탐라문화총서 3집 『탐라록』
		탐라문화총서 4집 『탐라지초본』 외
		탐라문화총서 5집 『탐라지』
	1989	탐라문화총서 6집 『제주도부락지』(1)
	1990	탐라문화총서 7집 『제주도부락지』(2)
	1990	탐라문화총서 8집 『제주도부락지』(3)
	1991	탐라문화총서 9집 『탐라지』
		탐라문화총서 10집 『제주도부락지』(4)
김홍식	1993	탐라문화총서 11집 『제주대정현덕수리호적중초』(1-4)

현용준	1994	탐라문화총서 12집『풍속무음』(1-2)
김영화	1995	탐라문화총서 13집『제주문학』
	1996	탐라문화총서 14집『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1-2)
송성대	1997	탐라문화총서 14집『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3-4)
고창석	1998	탐라문화총서 14집『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5-6)
고창석	2000	탐라문화총서 15집『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1-5)
강영봉	2001	탐라문화총서 16집『제주속오군적부』
	2002	탐라문화총서 17집『부해문집』(상)
	2003	탐라문화총서 18집『부해문집』(하)
		탐라문화총서 19집『수은시집』
조성윤	2005	탐라문화총서 20집『수은문집』
허남춘	2008	탐라문화총서 21집『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보고서Ⅰ』

김영돈은 구비문학 전공으로 민요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설화 자료의 수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양순필은 고전문학전공자이면서 민속학 자료에 관심을 갖고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에서 조사했던 보고서를 한데 모아 출판하였으며, 현용준은 무속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소위 '무당서'라 알려진 문헌을 영인하고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를 비정하였으며, 김영화는 현대문학 전공자로 1900-1949까지의 제주문학 작품을 정리하였다.

연구소의 업무는 자료 조사와 연구라 하였으니, 자료 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며, 연구는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는 자료에 있다 하겠다.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표에서 제시한 1985년 탐라문화총서 2집『제주설화집성』을 시작으로 22권(2008년까지)을 출간했으며, 학술총서로는『제주

민요의 배경론적 연구』,『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제주도마을이름연구』,『제주도포구연구』,『제주도고문서연구』,『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등이 있다.

1982년 2월에 낸『탐라문화』 창간호 부록에서 제시한 탐라문화연구소의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탐라문화총서의 연차 발간을 위한 가제목을 제시한 바 있다. 곧 어문분야(방언, 민요, 설화, 무가, 속담, 금기담 등 7권), 민속분야(민속개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민간신앙, 세시풍속, 통과의례 등 7권), 역사・고고분야(역사개관, 고고학, 근세사 등 3권), 지리・관광분야(지리, 관광자원 등 2권), 사회분야(사회개관, 도민의식, 농촌사회, 가족・친족, 인구, 유사종교, 사회변동 등 8권), 법경분야(관습법, 행정사, 산업구조, 시장발달사, 계 등 5권), 예능분야(민속음악, 무용, 민간공예, 민구 등 3권), 여성분야(여성생활사, 해녀 등 2권), 지역개발분야(지역개발방안)에 걸쳐 1차로 총 38권의 총서를 해마다 간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제로 진행된 것은 다르다. 학교에서의 재정적 지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들을 조사하고 연구를 담당할 연구자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또한 총서 제1권으로 제주도 방언사전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설화원고가 먼저 마무리되었다 하여『제주설화집성(1)』을 총서 제2권으로 출간하였다. 그때 당시는 바로 총서 1권을 간행할 수 있으리라 여겼겠지만 일이 여의치 않아 지금은 1권이 없는 2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제주설화집성』은 설화 자료의 집대성이란 의의만이 아니라 제주어표기법시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도 제주어를 표기하는데 이때 만든 표기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으로 보면 연구소의 역할은 기초작업에 치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소의 사업은 개인의 자료조사와 연구보다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진행해야 한다. 1985년 탐라문화총서 계획을 세울 당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연구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문학분과, 민속예능분과, 역사고고분과, 지리산업분과, 법정분과, 교육여성분과의 6개 영역을 활성화시킬 연구자의 확보는 연구소의 다양한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계획이 일부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과는 다르게 진행된 면이 있다. 이것은 『제주설화집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제시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이런 집성은 현지조사가 전제된다. 그런데도 본 연구소로서는 조사비를 지급할 아무런 방도도 찾을 수 없었음이 실로 안타깝다. 따라서 현용준·현길언 교수(필자포함) 및 고광민·김지홍·윤치부·변성구·고창성 등 조사보조원들이 사비로 자료조사에 정성을 쏟았다.-중략-자료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1983년,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전설지(1985.6.28)』를 꾸미기 위한 자료수집이 이뤄졌었는데, 마침 조사진과 조사시기가 거의 들어맞아서 이 총서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되었다.'[6]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문헌조사도 경제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제주설화집성』을 간행하는데 제주도청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연구자들은 1980년대 전승되던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료의 수집에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에는 문화에 대한 자료조사

6) 김영돈 외, 「발간경위」,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와 연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있다. 따라서 우수한 제주대학교의 연구자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탐라문화연구소의 위상은 저절로 높아진다.

탐라문화연구소가 기울여야 할 관심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문화의 영역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영역이 해당할 것이지만,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 실제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인 6개 영역을 살펴보아도 연구분과 편제는 언어・문학분과, 민속・예능분과, 역사・고고분과, 지리・산업분과, 법정분과, 교육・여성분과의 6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자연과학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연과학 영역이 문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토지를 활용한 농사와 바다를 활용한 어로 행위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토지를 활용한 농사는 화전이었을 것이다. 숲에 불을 넣고, 밭을 개간하여 남자는 철치와 같은 뾰족한 나무를 사용하여 흙을 일구고, 여자는 여기에 씨를 집어넣어 묻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번갈아가며 장소를 이동해야 했다. 그러니 노동의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화전은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가 많아지자 해변지역에서 점점 중산간으로 이동해 간다. 그러나 화전농사는 메밀, 조 등의 농사이므로 식량으로 풍족하지 않아 바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까지도 제주도를 빙 둘러가며 해마다 영등굿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바다를 활용한 어로법을 전승해 온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바다를 활용한 문화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테우를 이용해 바닷일을 하다가 많이 죽기도 하였겠지만, 바다를 활용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1488년 최부의 일행 40여 명이 제주를 출

발하였다가 강남지방으로 표류하였다가 육로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설같은 경험을 기록한 금남표해록[7], 1771년 서울로 과거길을 떠나다 풍랑을 만나 류큐열도를 표류하다 돌아와 남긴 표해록 등으로 보면, 주변국 인물들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음도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다. 이들로부터 그들의 문화가 전수되었을 것이니 제주의 문화요소 중 주변과 비교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을 것이다. 이러한 방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바다를 이해해야 하므로 자연과학에 해박한 연구자가 필요하다.

탐라시대의 문화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다.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는 누구라도 탐라문화에 대해 연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제한을 느끼는 분야도 있다. 언어의 문제를 예로 들면, 제주 방언을 조사 연구한다고 할 때, 제주에서 성장하며 문화를 체득한 연구자가 그렇지 않은 연구자보다 훨씬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민속을 조사할 때,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만을 관찰하여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직접 주민과 인터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역시 제줏말을 이해하면 더욱 심도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민속음악을 조사한다고 할 경우는 직접 언어를 모르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탐라문화를 조사 연구하려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민과 대화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몸으로 부딪치며 조사해야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탐라문화연구소는 바로 이런 점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즉,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연구과제로 삼는 6 개 영역의 자료는 탐라문화연구소가 아니면 얻을 수 없어야 하

7) 고병익, 「성종조 최부의 표류와 표해록」, 『이상백박사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64, 283-306쪽

고, 심도 있는 해석은 탐라문화연구소에서만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탐라시대의 문화를 조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문화 요소를 정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른다. 이런 경우는 주변 자료를 통해 탐라문화의 공백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신화에서 삼성이 땅 속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모티브를 해명하려 할 때, 한반도의 신화 모티브로 해명이 안 되니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의 신화 모티브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한 것을 불러들이는 '넋들임'이라는 풍속이 한국 본토에는 없는 것이 오키나와에는 '마부이구미'라 하여 있다. 따라서 이들 관계를 통해 제주의 영혼관을 이해할 수 있다. 장례법의 경우도 제주도가 섬이므로 한반도의 장사법과 다를 것은 뻔한데, 추정이 불가능하다면 주변 섬의 장사법과 비교함으로써 제주도의 장사법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제주도에는 남방식 고인돌이 있어 일방적 북방문화의 전래라 할 수만은 없어 문화의 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담수계(淡水契)편『증보 탐라지(增補 耽羅誌)』에 의하면 세종 때 기건(奇虔)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하였을 때 주인 없는 백골이 냇가에 많이 나뒹구는 것을 보고 주위에게 명하여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기건이 꿈을 보았는데 300여 명이 앞에 와서 감사히 절하여 가로되 "공의 은덕으로 뼈가 비바람에 바래는 것을 면하였으니 그 은덕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공은 금년에 응당 어진 손자를 얻어 키우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기건의 3자에는 모두 아들이 없었는데 과연 이해에 아들이 손자를 낳았는데 벼슬은 응교를 지냈다.

오늘날은 매장을 하므로 냇가에 뒹구는 시신들이 어떤 장사법의 결과인지 알 수 없어 풍장인지, 수장인지, 병든 환자의 시신을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시신의 백골들이 기건 목사가 바라보기에 부당하

다고 생각하여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생각은 매장을 당연히 했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렇다. 하지만, 백골이 나뒹구는 것 자체를 제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수장일수도 있고, 풍장일 수도 있다. 이런 장법은 주변국의 장법을 토대로 해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의 혼인 방식에서 외삼촌을 우대하는 풍습, 죽은 혼사, 이바지제도, 뱀신앙 등등 많은 문화요소들이 주변의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주변국 문화 조사를 통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핀 연구소의 발간 자료는 역사에 치중해 있었다. 워낙 탐라에 대한 자료가 일천하므로 모든 자료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자료는 서둘러 모아야 한다. 한 예로, 제주방언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무속도 일부를 제외하면 그 맥이 끊기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므로 개발을 통해 사라지는 고고학 자료에 못지 않게 구비전승 자료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농사를 기반으로 행해지던 세경놀이가 조농사를 짓지 않게 됨으로써 주술적 놀이의 성격보다 오락성이 강한 놀이로 연극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고, 출생의례는 의학의 발달로 소멸되었고, 더불어 삼승할머니의 점지로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사고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불신받게 되자 기자의례인 불도맞이가 사라지고 있다. 이 외로 혼례, 상례, 제례 등은 모든 것이 현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변모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재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세 연구자들을 위해서라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보존해야 한다.

자료조사는 '실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가감 없이 서술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며 전승하고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자연과학처럼 정답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해명하는 방법론에 따라 독자를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연구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주변학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는 왜 잠녀(해녀)가 있을까? 인문학자들은 밭농사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기에 바다를 활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자의 경우 인간은 동물성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밭농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동물성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에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육지의 동물을 사냥하여 섭취하기 보다는 바다에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쉬우므로 제주도에는 잠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관점이 제기된다. 탐라문화연구소는 이런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학문적 성숙이 이룩된다.

이러한 것은 제주의 문화가 탐라시대의 것을 이어받으면서 본토의 문화와 구별되는 특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원진이 『탐라지』에서 제시하는 특성은, 제주도의 풍속이 어리석고 검소하며 예절이 있고, 방언은 이해하기 어렵고, 밭머리에 무덤을 만들고, 음사를 숭상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고, 돌을 모아 담을 쌓고, 풍속이 야만스럽고, 여자가 많고, 경직을 귀히 여기지 않고 등등.... 다양하다. 이 모두는 외부에서 온 제주목사의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형상이 당 500 절 500을 불태우고 훼철하였다는 것에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의심이 간

다. 본토에도 당과 절이 있었는데 그는 제주도에서만 이들을 불태웠지 본토에서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출발하면, 제주도의 원주민과 도래인과의 사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당과 절을 훼철시키는 것이 당시의 유명한 유학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 무지막지하게 훼철시키려 한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건만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도 의문스럽게 한다.

> 의례 성격상 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상장례이다. 그러니 다른 분야보다는 의례 분야로 탐라시대 문화의 흔적을 찾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통과의례 중 상제례를 통해 그 흔적을 살펴본다.
>
> 유교식 상례를 치렀다는 기록은 세종 때에야 비로소 등장한다. 이성만(李成萬)은 아우와 함께 부모가 죽은 후,
>
>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며, 매양 아침 저녁에 형제가 서로 가고 오고 하여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비록 한 개의 음식을 얻어도 반드시 함께 먹었다. (중략) 제주의 전 주부 문방귀(文邦貴)는 그곳(제주:필자) 풍속이 3년상을 행하지 않지만, 병술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며, 상제(喪制)는 다 가례를 따름으로써 효도의 기풍을 세우니, 제주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무덤을 지킨 자가 3인이요, 3년 상을 행한 자가 10여인이나 되었다.[8]

고 한다. 자세한 정보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것은 고려 말에 유입된 성리학에 따른 유교식 매장이며, 오늘날의 민속으로 추정하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간격을 두고 사망하였고, 부부는 같은 장소에 매장

8) 『세종실록』 권 7(세종 2년(1420) 1월 21일 경신조)

을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형과 아우는 서로 나누어 무덤을 지킨 셈이다. 그리고, 문방귀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고, 제주도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가례를 행하였으며, 이를 본받아 자식이 무덤을 지키는 사례가 3가지가 있고, 3년 상을 행하는 사례가 문방귀 이후 10여 가지 사례가 있다는 말이다.

세종 때부터 200년이 지나 제주목사 민기(閔機)[9]의 장계에 따르면,

> "本州에 거주하는 전 注簿 吳夢悅은 젊어서부터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는데, 어미가 죽어서는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죽을 먹으며 슬픔에 몸이 상할 정도로 예를 다하였고, 아비가 죽었을 때도 그리하였으며, 庶母를 아비가 살아 있을 때처럼 섬겼습니다.-중략-이 사람들은 해당 曹를 시켜 旌表(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하는 은전을 거행하여 섬 사람이 다 조정에서 권장하는 뜻을 알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10]

주부 벼슬은 종6품이니 그리 높지 않지만 역시 벼슬아치가 되니 유교식 상례를 따랐다. 그로부터 또 다시 160여 년이 지난 18세기에도 백성들이 무속식을 지냈기 때문에 정조는 직접 『의례문해(疑禮問解)』와 『예의류집(禮疑類輯)』 각 1질을 특별히 내려서 해당 목사가 향교에 보관하여 사민들로 하여금 익혀서 국가가 명교(名敎)를 받들어 미몽을 깨우치는 뜻을 모두 알게 하도록 명하였다.[11] 이러한 기록을 참고로 하면, 극소수만이 유교식을 따랐고, 대부분은 무속식 의례를 행했다고 본다. 게다가 벼슬하는 상류 일부층은 유교식 제법을 따르려 했지만 서민들은

9) 민기(1568-1641). 1623(인조 1) 8월-1624(인조 2) 6월 제주목사로 재임.
10) 『인조실록』 권 6(인조 2년 1624, 5월 11일 갑자조)
11) 『조선왕조실록』 권 20(정조 9년 1785, 5월 12일 경신조)

거들떠보지도 않았음을 알겠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야 유교식 상례가 백성들에게 부담감 없이 치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례 성격상 고형을 유지하는 것이 상장례이므로 이와 관련한 조사 연구가 중요하다고 본다.

5. 마무리

탐라 땅에서 탐라인이 한편으로는 자연에 도전하고, 때로는 순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전승해 온 것이 탐라의 문화라 하겠다. 하지만 탐라에서 탐라군으로 격하되면서 고려에 복속되는 110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독자적 문화 전승보다는 한반도의 문화와 밀접해졌다고 본다. 고려 중기에 들어서야 탐라라는 이름 대신 제주로 바꿔 쓰게 되었으니 본격적인 제주는 이제 700년을 넘었다. 이렇게 보면, 기원 후 2000년의 반은 탐라문화요, 반은 제주문화인 셈이다. 오늘의 생활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지만, 과거는 10년이 지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신앙적 측면의 생활 방식은 몇 백 년을 두고도 변함없이 유지·전승되었다 할 수 있다.

이제, 탐라문화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은 이러한 과거의 문화 요소를 종합하고, 계승하며 절해고도인 제주에서 자연현상을 어떻게 인간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며 지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다. 인문현상과 사회현상의 기반은 자연과학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탐라인은 탐라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으나 오늘날은 어느 곳이 중심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기치 아래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를 추구하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문화의 면면을 세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연구성과를 내어야 한다.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문화보전 계획을 세우고 행정관청의 협조를 끌어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KCI

참고문헌

『세종실록』

『인조실록』

『정조실록』

『탐라기년(耽羅紀年)』

담수계편, 『增補耽羅誌』

고병익, 「성종조 최부의 표류와 표해록」, 『이상백박사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64.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여성사료집 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200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창간호·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탐라사 연구자료집 1』, 제주도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외.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50년사』, 제주대학교, 2002.

Abstract

The Character of 『Tamna-munhwa』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Hyun, Seung-Hwan*

The author has mainly focused on four main thing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amna Institute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Jeju Culture and Tamna Culture from a present point of view of Jeju. It is called Tamna Culture before the Goryeo Dynasty and Jeju culture after it.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nothing much between the two other than the change of their name for the sake of the ruling adminstration. The Jeju Culture has inherited the Tamna Culture.

Secondly, The cultures of Tamna might be unproved. However, the Tamna Cultur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owing the peculiar characters of various cultures in Jeju. This is the main reason we, Jeju people, have to explore, and preserve the lives and the customs in Jeju which could be traced back to the Tamna Culture.

Thirdly, it is strongly expected that the Tamna Institute focus on two things: to research the traditional Jeju cultures and to train researchers for these cultures. Research centering around dialect, traditional literacy and folk customs has been extended into the other areas.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Finally, different research methods have been adopted for the new directions. The Tamna Institute should be the place in which the results of individual researchs have been talked and debated. Various discussions can lead researchers,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to the innovative conclusions. This is the way to show what a genuine Jeju culture is about. Furthermore, it should be mentioned that new efforts should be made to retrieve the ancient culture of Jeju through the comparison of that of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s

Tamna Culture, Jeju Culture, study on Jeju

교신 : 현승환 690-0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650-30
(E-mail : hyunsh52@cheju.ac.kr 전화 : 011-9316-6923)

최초 투고일 2008. 7. 18
최종 접수일 2008. 8. 18